

장수문학 성과 공유 · 지역 문화 발전 기반 강화

제7회 장수문학상 시상식 장수문학 제36집 출판 기념식

장수군은 제7회 장수문학상 시상식 및 2025년 장수문학 제36집 출판 기념식을 장수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문인협회 장수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문화인파 독자, 문화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장수문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인사말, 장수문학상 운영 경과 보고, 심사 운영위원장의 심사평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장수문학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한 흐름을 되짚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올해 장수문학상은 산문 부문 김중운 수필가, 운문 부문 김용주 시인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수상자는 장수문학에 게재한 작품을 통해 문학적 완성도, 창작 의지, 지역문화 발전 기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 후에는 축하와 함께 수상자의 소감



장수군은 제7회 장수문학상 시상식 및 2025년 장수문학 제36집 출판 기념식을 장수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

발표, '장수문학 제36집 봉정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문인들이 정기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문학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문학의 지속 발전과 장수문학상 시상식은 지역 문화 정체성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게 창작 환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문학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조방회 한국문인협회 장수군지부 회장은 "이번 출판 기념식은 장수지역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 문학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지역 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 무형유산 '진안고원형옹기장' 공개시연회 개최

이현배 보유자 '그릇이 된 생각들' 주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진안고원형옹기장' 이현배 보유자는 11일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손대옹기점(백운면 입진로 1724)에서 '그릇이 된 생각들'을 주제로 전시 및 제작 시연하며 옹기 문화를 공유했으며, 가마 번조 과정까지 진행했다.



진안고원형옹기장 이현배 보유자는 30여년간

진안 백운면 손대 마을에서 옹기점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고원형옹기'는 일반적인 남부식 옹기보다 어깨가 훨씬 발달하여 미산처럼 솟아오른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현배 보유자는 이러한 진안도자 문화의 전통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진안옹기문화의 발전과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 체험과 여행을 결합한 태권스테이를 운영 중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별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에브인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당일 체험형'과 '1박 2일' 상품으로 운영하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태권스테이' 또는 태권스테이 플랫폼인 '노는법'을 검색 후 예약할 수 있다.

한편, 2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11시와 오후 2시에는 태권도원 상설공연과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모노레일과 체험관 압 등 즐길 거리를 정상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무형유산 '매사냥' 공개시연회 13일 진안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매사냥' 공개시연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진안군 백운면 매사냥체험홍보관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이사 박정오)가 주관하는 이번 시연회는 우리 고장의 전통 민속문화이자 올해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5주년을 맞은 '매사냥'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매사냥 체험홍보관 내 전시물을 통해 매사냥의 유래와 전통 매릿, 그리고 관련 사진을 살펴볼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매사냥법과 매 포획 기술을 시연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진안군 백운면은 날짐승이 많고 겨울철 강설량이 많은 고원지대로, 매사냥 전통이 지금까지도 생생히 전승되는 지역이다. 이번 시연회에는 박정오 이사장과 이수자 7명이 참여해 실제 매를 활용해 토끼와 꿩을 잡는 전통 사냥 과정을 재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4)

장충을 들고 있었다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아, 아니야, 아닐세. 허허허. 당골래 말하는데 부정 타게 괜히 끼어들었어, 허허허."

"좋지 않습니까?"

강용대의 질문에 신동택은 그렇다 안 그렇다 즉답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다.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운명이라는 것이 본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옆에 앉아 있던 연기택이 끼어들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마음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천지신명께서 내리신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또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동택과 연기택은 나온 점괘를 이리 말 불이고 저리 말 불여 운색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점괘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알아 있는 모두는 알 수 있었다.

1950년 정월과 대보름 바쁜 시절을 보내고, 막 봄이 시작되면서 평화는 남준과 함께 남준의 집에서 강병도에게 장구를 배웠다. 올해를 끝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남준과 평화는 무업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했으므로 무업에 필요한 기예를 배우는데 더 집중했다.



하지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 다른 마을도 곳을 못하게 하면 어쩌지?"

"못하게 하는 건 공산주의 때문이잖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대우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곧 여기도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럴 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남준은 평화의 어깨를 감싼 팔에 더 힘을 주며 평화를 다독였다.

시국이 몹시 시끄러운 탓에 평화의 걱정을 남준도 느끼고 있었지만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가벼운 봄 바람을 맞으며 평화와 함께 발길을 걷는 이 행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다.

남준과 평화가 막 황전마을 어귀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마을로 접어드는 오른쪽은 야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야산에서 남파 하나가 주변을 살피며 걸어 내려오는 게 보였다.

등에는 배낭을 메고 철모를 썼고 손에는 장충을 들고 있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는 평화의 입을 남준은 얼른 막으며 끌어 안고 급히 몸을 낮췄다.

남준의 머리로 스쳐가는 게 있었다.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각지로 흩어졌는데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니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골목길로 접어들기 전에 몸을 낮춘 군인은 사람을 살피더니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사주경계를 하면서 골목길 안으로 들어갔다.

머칠이 지난 어느 날, 너무 열중하다보니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어서야 장구 공부 끝났다. 남준은 평화를 바래다주려고 같이 집에서 나왔다.

하늘이 맑은 탓인지 초저녁부터 달도 없는 하늘 저 멀리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별들이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가끔 별동별이 사선을 그으며 떨어져 내렸다. 바람은 시렸지만 추울 정도는 아니었다.

"좋지 않아?"

"아니."

그러면서도 평화는 어깨를 바르르 떨었다. 남준은 평화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추울 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최고야."

"어른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평화는 남준의 팔을 털어내려 했다.

"어떡하긴 어떻게 해. 우린 혼인할 사이인데, 허허허."

남준은 아예 양 팔로 평화를 끌어안듯 꼭 안고 걸었다. 평화는 대답하다며 남준의 한쪽 팔을 떼어냈다. 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부끄러운지 얼굴들을 붉히며 더 반짝거렸다.

"우리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나서서 곳을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